

“민선 8기 후반기 전략산업 앵커기업 유치 집중”

김지사, ‘그랜드 전남 10대 프로젝트’ 행정력 집중 강조 SOC 사업 내년 예산 증액 반영·교육발전특구 선정 주력

김영록 전남지사는 2일 민선 8기 남은 2년 동안 업무 분야별로 도민에게 희망적인 계획을 제시하고 지역의 미래 전략산업을 이끌 앵커기업 등 투자 유체에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민선 8기 후반기 첫 실·국장 정책회의를 열어 “지난 2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미래 세대에 물려줄 새로운 청사진 ‘그랜드 전남 10대 프로젝트’ 실현에 온 힘을 쏟자”며 이같이 밝혔다.

‘그랜드 전남 10대 프로젝트’는 지난 달 28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제시한 미래 비전으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미래 성장추진 신바람 전남 ▲인

구 대전환 전남 ▲남도 케이(K)-컬처 전남 ▲에너지수도 전남 ▲기업이 물려오는 기회의 땅 전남 ▲글로벌 브랜드 생명산업 전남 ▲미래로 뻗어가는 SOC 전남 ▲따뜻한 행복공동체 전남 ▲안전 1번지 전남이다.

김 지사는 “10대 프로젝트에는 우리가 해야 할 방향이 잘 제시돼 있으므로 이를 모토로 남은 2년 열심히 해주길 바란다”며 “모든 실·국이 도민과 소통하는 자리에서 도정의 기본 상황과 방침을 설명하고 희망적인 계획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민생 안정 긴급 대책도 속도감있게 추진하자”고 독려했다.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예타 면제 확정과 화순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김영록 전남지사가 2일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실국장 정책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특화단지 지정, 기회발전특구 5개 산업 125만평 규모 선정 등 최근 성과에 대해

그는 “사업 확정된 것도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앵커기업을 비롯한

좋은 기업을 많이 유치하는 것”이라며 지역 경제 활력 도모와 해당 산업의 세

계적 중심지 도약을 위한 노력을 주문했다.

국고 확보와 관련, 김 지사는 “정부의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려 내년은 올해보다 더 어려운 것”이라며 “실·국별로 전략·체계적으로 접근하고 특히 사업 진도가 부진해 사업비 축소가 우려되는 대규모 SOC 사업의 경우 당초 계획에 맞춰 늦어지지 않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하고 내년 예산에 증액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김 지사는 또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공모에 나선 모든 시·군 선정과 글로벌대학30에 예비지정된 목포대와 동신대연합의 분지정을 위해 시·군, 대학 등과 연계해 일체형으로 뛰고 있어 결과가 기대된다”며 “지역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학과 지자체의 협력이 중요해진 만큼 실·국이 관심을 갖고 함께 나서달라”고 덧붙였다. /김재정 기자

광주경제청, 日 나고야서 투자유치 활동

나고야무역관과 협력 미래차 산업·투자 환경 설명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이하 광주경제청)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사흘간 일본 나고야에서 자동차 산업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 등 투자유치 활동을 펼쳤다.

이번 나고야 투자유치 활동은 광주 시 미래 모빌리티 산업과 광주경제자유구역에 홍보하고 이를 통해 일본 나고야 소재 투자 유망 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추진됐다.

일본 나고야는 글로벌 기업인 토요타 자동차를 중심으로 자동차 부품 관련 업체들이 밀집된 일본의 대표 자동차 산업 도시다.

코트라(KOTRA) 나고야무역관의 협력으로 투자유치 활동에 나선 광주

경제청은 나고야 지역 자동차 부품 유망기업들과 라운드 테이블 간담회를 갖고 광주 미래 모빌리티 산업 투자 환경과 특전(인센티브) 소개, 네트워크 구축에 나섰다.

또 나고야 자동차 부품 기업과 금융기관, 관계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 미래 모빌리티 산업 투자유치 설명회와 1대1 기업 방문 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다.

투자유치 설명회에서는 미래형 자동차 산업지구(빛그린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친환경 자동차 부품 인증센터, 친환경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등 지원 기반 시설과 미래차 국가산단,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으로 모빌

리티 투자 최적지가 된 광주의 우수한 입지, 차별화된 투자 환경 등을 소개했다.

특히 광주에 진출해 있는 일본계 자동차 부품사인 ‘한국알프스’를 한국 진출 성공 사례로 발표해 일본 기업들의 관심을 높였다.

광주경제청은 이번 활동을 통해 발굴한 잠재 투자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관리를 지속해 실질적 투자유치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선석기 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은 “이번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광주의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적극 홍보하고 투자 유망 기업을 발굴해 지속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성공적으로 투자유치를 이끌어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전남도의회, 내달 말까지 정책 아이디어 공모

전남도의회는 2일 “오는 8월31일까지 2개월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정책 아이디어 공모는 국민의 참신하고 창의적

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우수 사례를 자치법규와 정책 입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공모 분야는 ▲전남도의회 의정 및 전남도 정책 개선·발전 아이디어 ▲도

민 불편 법령·제도 개선 ▲지역사회 현안 해결 방안 ▲전남도의회 발전을 위한 미래 지향적 제안 등이다.

공모 참여 희망자는 전남도의회 누리집에 게재된 공모 신청서를 작성, 전자우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김재정 기자

전남도의회 예결위원장에 나광국 의원

윤리위원장엔 이규현 의원 선출

전남도의회는 2일 “제12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나광국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규현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고 밝혔다. 윤리특위 부위원장에는 최동익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예결위와 윤리특위 위원장·부위원

장의 임기는 1년이다.

나광국 예결위원장은 “세수 감소로 전남의 재정 여건이 어려운데 경기 침체까지 더해진 상황에 위원장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도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마련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편성되고 쓰일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예산을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이규현 윤리특위 위원장은 “도민들이



나광국 이규현

지방의회와 의원에 대한 청렴도, 윤리의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도민 눈높이에 부합되는 기준·원칙으로 청렴한 전남도의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정 기자

광주 일경험 참여 드림청년 모집

16일까지 19-39세 470명

광주시는 2일 “광주청년 일경험드림플러스” 사업을 통해 일경험에 참여할 제16기 드림청년 470명을 오는 1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광주청년 일경험드림플러스”는 광주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19-39세(1984년 8월2일생-2005년 8월1일생) 미취업 청년이면 참여할 수 있다.

사업에 참여하는 ‘드림청년’은 매칭된 사업장에서 주 25시간씩 5개월간 일 경험을 하게 되며 광주시 생활임금 수

준(세전 월 167여만원)의 급여를 받는다.

특히 하반기 일경험드림플러스 사업은 은둔형외톨이, 자립준비청년 등 사회 진출에 도움이 필요한 청년을 별도 선발하는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다. 은둔형외톨이센터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대상자를 발굴하고 취업 취약 계층인 이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청년과 사업장의 일경험 연계를 위해 16기 드림터(참여 사업장)로 한국전력거래소, 광주신용보증재

단, 한국알프스(주), ㈜해양에너지, ㈜무등기업 등 광주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 중소·중견기업, 창업기업, 사회적경제기업, 사회복지기관 등 20여곳을 모집했다.

일경험드림플러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1일부터 오는 16일 오후 9시까지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누리집에서 면접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된다.

사전 신청을 완료한 청년은 오는 15-17일 시청 시민홀에서 열리는 ‘드림청년의 날’에 하루 이상 참여해 드림터 상담과 면접을 진행하고 17일 오후 9시까지 최종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박선강 기자

광주매일신문 배려 교통문화 실천운동 캠페인

차만손

차를 만나면 손을 들어 소통해요

QR 코드 스캔하여 차만손 영상 보기

차만손이 왜 필요할까요?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22년도 전체 보행자 사망자(933명) 중 횡단 중 교통사고 사망자 54.6%(509명) 차지

도로 횡단 의사 표현

‘22. 7. 12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 보행자가 횡단보도 통행하려는 경우에도 일시정지 의무

운전자와 소통하는 문화

차량 양보율(광주·전남) 9%
→ 차만손 수신호 실천 시 86%

차만손 어떻게 실천해요?

보행자 실천방법

- 1 도로를 건너기 전 좌우를 살핀다.
- 2 다가오는 차량을 향해 손을 90도로 받는다.
- 3 운전자와 아이컨택하며 손바닥을 보인다.
- 4 차량이 멈추면 도로를 건넌다.

운전자 실천방법

- 1 도로를 횡단하려는 보행자가 보이면 서행한다.
- 2 차만손 등 보행자가 통행의사를 표시하면 일시정지한다.
- 3 보행자가 횡단보도에서 완전히 벗어나면 지나간다.